

연변의 커피이야기 널리 전파해 연변 커피향 만방에 퍼지게

연변 왕흥커피기업좌담회 조직

2일, 연변은 왕흥커피기업좌담회를 조직, 일부 왕흥커피기업 책임자를 한 자리에 초청하여 커피산업의 승격을 추진하고 연변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데 대한 방법과 경로를 함께 토론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인 호가복이 좌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주당위와 주정부를 대표해 많은 커피기업들이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변영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 것에 감사를 표하고 나서 현재 연변의 문화관광시장 열기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유리한 기회를 다잡고 시장 수요의 변화에 따라 제품 공급을 풍부히 하고 소비 체험을 향상시키며 커피이야기를 잘 전하여 연길 커피산업의 규모화, 특색화, 브랜드화 발전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커피향 진한 연변 관광'이 새로운 문화관광 소비 추세로 거듭나게 할 것을 희망했다.

헨즈커피, 로피번커피 등 기업의 19명 책임자는 생산경영 현황, 발전 과정에 부딪힌 어려움과 도전, 미래 발전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기업 우대정책, 종업원 양성, 금융봉사 강화 등 부분에 대해 각자 의견과 기대를 제기했다. 연길시, 룡정시와 주 지속 관련 부문 책임자가 기업 발전을 위한 봉사과 지지, '커피 및 관광'의 심층 융합 추진 등 내용과 관련해 기업 책임자들과 교류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들어 기회를 다잡고 용감하게 도전하여 커피제품 혁신, 봉사 질 승격, 경영 규모 확대 등 면에 공을 들이고 실효를 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생산경영에서 양호한 발전 추세를 보여 연길 도시 브랜드의 평판과 흡인력을 확대하고 연변 관광시장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데 적극적인 기여를 했다. 연변에는 커피숍이 많고 커피 브랜드가 다양하며 만명당 커피숍 보유량이 전국 현역도시 중 1위이다. 커피문화는 이미 도시, 시민 생활에 깊이 녹아들었고 연길의 아름다운 명함장으로 되었다. 현재 연변은 연길 커피업종이 계속 발전하는 양호한 추세에 힘입어 산업사슬 상하 유 부대 커피기업의 입주, 착지를 적극 유치하고 커피산업사슬을 일층 연장하며 커피 소비의 새 업태를 육성, 구축하고 '커피 및 관광'의 심층 융합 발전을 다그쳐 추진하는 등 커피산업을 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성장점으로 구축하기에 힘쓰고 있다.

호가복은 창의, 혁신, 창조를 견지하고 생산경영관리, 커피제품 개발, 마케팅 및 홍보 등 면에 집중적으로 힘을 기울여 '현역 커피의 왕'이라는

'금빛간판'을 더 빛내고 이목을 더 집중시켜 연변 문화관광의 지명도와 영향력을 일층 향상시키기를 희망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연변 문화관광시장의 열기가 지속됨에 따라 커피경제를 확대하는 것은 문화관광산업을 이끌고 도시 식별도를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길시, 룡정시, 화룡시, 도문시 및 각 관련 부문은 커피기업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문화관광산업 발전, 도시 질 승격의 큰 사업으로 간주하고 힘써 들어줘야 한다. 기업에서는 중점상권, 특색거리, 풍경구, 향촌민박 등 곳에 가게를 차리는 것을 지지하고 기업을 인도하여 '업태융합', 다업종 협력을 적극 탐색하며 커피와 향촌관광, 무형문화유산, 특색음식 등의 융합 발전을 떠밀고 연변 요소가 다분한 커피음료, 음식 세트와 고품질 기념품을 혁신적으로 출시하여 새로운 왕흥 포인트가 형성되도록 힘써야 한다. 아울러 본토 커피 브랜드의 영향력을 제고해 커피 공공 브랜드와 자주 브랜드 건설을 강화하고 커피기업에서 전국성, 지방성 커피 경기에 참가하는 것을 격려, 지지하며 였니미디어에 의탁하여 연변의 커피이야기를 널리 전파함으로써 연변 커피의 향이 널리 퍼져나가게 해야 한다.

/ 본지종합

개산툰진

'832 플랫폼' 활용해 농민 소득 끌어올려

최근년간 룡정시 개산툰진은 '832 플랫폼'을 활용하여 농민들의 특색 농산물이 플랫폼에 출시하도록 추진함으로써 농민들의 수입 증가 경로를 개척했다. '832 플랫폼'은 자원 통합과 시장 접점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개산툰진의 량질 쌀과 콩기를 등 농산물을 각 지역의 구매단위에 추천함으로써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예전에는 좋은 제품일지라도 판매가 어려웠지만 현재 '832 플랫폼'을 통해 많은 구매단위들과 합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년간 개산툰진 농민들은 '832 플레

트홈'을 통해 루계로 9,000여건의 농산물을 판매했는데 금액이 130여만 원에 달한다. 룡정시 개산툰진 40가구의 52명이 이미 '832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증가했는데 그중 빈곤해탈 농가가 21가구에 달한다. 향후 개산툰진은 지속적으로 '832 플랫폼'을 활용하여 현지 농산물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제품 공급을 최적화함으로써 더 많은 농민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룡정시융합미디어중심

기업 탐방 통해 학습과 교류 진행

11월 30일, 연변대학 경영자과정 학우회는 연길시 일부 기업들을 탐방해서 서로 학습하고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연길시청향관은 민속전통음식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민속음식 대표주자로 각광받고 있다. 이날 학우회 회원들은 청향관 리숙 사장이 직접 조리한 떡볶이, 닭발볶음 등 음식들을 맛보면서 맛과 마케팅을 둘러싸고 의견을 교류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또 연길시신생활건강미용체험관 강문화 사장의 건강미용체험관 운영 상황과 제품 소개를 들으면서 회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한다는 인상은 건강을 선물한다."는 리념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람마다 건강을 선호하는 요즘 헬스장도 소비자들 주목하는 업종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정다운헬스관은 대학 상가에 위치해 대학생 소비계층이 주류를 이룬다. 김상덕 관장이 당면 사람들이 정확한 헬스 방법을 모르고 헬스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어려움을 호소하자 회원들은 솔선해서 헬스 코치들의 강의 시범을 참관하고 헬스 효과를 직접적으로 모멘트에 올려 사회적으로 정확한 헬스 붐을 일으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입을 모았다. 연변대학 경영자과정학우회 관련 책임자는 기업 탐방은 기업의 어려움, 진로 모색, 아이디어 공유 등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기업 탐방 활동을 조직해 학우회 영향력을 과시하고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일조하며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영화기자

훈춘시총공회

'가게 탐방' 동영상으로 소비 활력 향상

최근 훈춘시총공회에서 기획하고 촬영한, 종업원이 공회증을 소지하면 혜택을 받는 '가게 탐방' 짧은 동영상은 훈춘 소셜미디어에서 재빠르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가게 탐방' 짧은 동영상은 훈춘시총공회 부주석 방천이 총감독을 맡았다. 룡정시 개산툰진과 동영성 제작팀은 초기 가게 선정부터 '가게 탐방' 대본 작성 그리고 촬영 과정의 복장, 화장, 도구와 조형 등 절차까지 모두 자체로 설계하고 모든 동영상을 잘 찍으려고 노력했다. 방천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년간 훈춘시총공회는 융합미디어 건설과 운영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워킹 공식계정과 동영상 계정을 포함한 공회 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종업원들에게 풍부한 정보와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참신한 선전 방식을 통해 공회의 보편적 혜택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종업원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힘을 보탤 예정이다. 훈춘시총공회는 종업원이 공회증을 소지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행사를 이미 3차례 진행하였는데 식사, 숙박과 교통 등 면을 포함한 73개의 상가와 117개의 점포가 행사에 참가하여 종업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줌으로써 보편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방천은 "훈춘시총공회는 지속적으로 더 많고 좋은 가게를 종업원들에게 추천하고 더 많은 종업원들이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불어 동영상 제작 수준과 아이디어 능력을 끌어올려 량과 질적으로 향상된 '가게 탐방' 짧은 동영상을 촬영, 제작하는 것으로 더 많은 종업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밝혔다.

/ 두만강신문

제 5 회 할빈채빙축제 12월 7일 개막

12월 7일, 제 5회 할빈채빙축제가 할빈에서 개막되었다. 송화강변에서 일년에 한번씩 열리는 채빙축제는 송화강도라고 서쪽의 모래사장 부락에서 '첫 얼음을 채집해 동계야시안개임을 경축하자'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채빙축제는 전통적인 채빙 모식을 기반으로 더욱 많은 빙설문화, 인문풍토, 백성들의 상호작용과 요소를 융합시켜 빙설문화의 전승과 혁신을 실현하고 관광객과 현지 시민들에게 지역 특색이 다분한 채빙성전을 선사했다.

할빈채빙축제는 영풍기(迎風旗), 진천고(震天鼓), 기복사(祈福詞), 출정주(出征酒), 채두빙(采頭冰), 계홍운(系鴻運) 등 단계로 구성되었다. 의식이 끝난 후 또 군중대련환, 행운의 첫날 얼음, 큰술에서 얼음만 두 삶기, 강물민물고기잡, 얼음의 정과 눈의 정취, 빙설시장 등 행사가 열리면서 엄동설한 북국의 풍경을 연출했다. 채빙축제에서 채취한 새 얼음은 제 26회 할빈빙설대세계단지로 운송되어 얼음조각 건설에 사용된다.

/ 할빈일보



2025년 뱀띠해 기념주화와 기념화폐 발행 예정



중국인민은행은 2024년 12월 16일부터 2025년 새해 기념주화와 기념화폐를 련속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그중 2색구리합금기념주화 1매, 기념

화폐 1장, 금기념주화 1매, 은기념주화 1매가 포함되고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 화폐이다.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화하은행, 포발은행, 소주은행, 미상은행, 장사은행, 섬서성농촌신용합작사(이하 '예약취급은행')는 공동으로 2025년 새해 2색구리합금기념주화와 기념화폐의 예약교환을 담당한다. 예약취급은행은 2024년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25년 새해 2색구리합금기념주화와 기념화폐의 예약 업무를 처리한다. 대중들은 예약취급은행 공식 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

해 예약하거나 영업시간내에 예약취급은행에서 발표한 예약환전망을 방문하여 예약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예약취급은행은 2025년 1월 3일부터 1월 9일까지 2025년 새해 2색구리합금기념주화와 기념화폐의 예약교환 업무를 진행한다. 대중들은 예약된 시간에 따라 예약 시스템에 등록된 유효 신분증을 소지하고 예약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예약교환 및 환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025년 새해 2색구리합금기념주화는 1인당 예약 및 교환 한도가 20매이다. 2025년 새해 기념화폐 1인당 예약 및 교환 한도는 20장이다.

/ 인민넷

설향—연길 관광 직통버스 개통

연변조선족자치주문화라지오호텔레비전방송및관광국의 지원으로 연변강위국제여행사가 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버스 로선을 신설했다. 이번 로선의 개통으로 3개 지역의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연길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설향과 연길을 잇는 직통버스는 5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명년 3월 10일까지 운행될 예정인데 하루 1회 쌍방향으로 운행하며 소요 시간은 약 5시간 30분에서 6시간 30분이다. 설향—연길 직통버스는 각각 흑룡

강성 목단강 산문봉사중심 주차장과 연변국제상업무역중심에서 오전 9시에 출발한다. 고급 관광버스를 리용하여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며 전문가이드가 동행하여 여행중 궁금한 점을 해결해주고 다양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지난 겨울, 관광 직통버스를 리용해 연변을 찾은 관광객은 4,000명을 넘어섰다. 올해 새롭게 개통된 이 로선은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겨울철 관광을 선사하고 동북지역 겨울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김영화기자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의 59% 지역이 심각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아라비카 커피 원두 가격이 1977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했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AFP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 선물 가격은 파운드당 3.20달러까지 상승했는데 이는 3.38달러였던 197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라비카 원두 가격은 올해 들어 서만 약 70%가 올랐다. 일스턴트 커피 또는 주로 기타 원두와 섞어서 사용되는 로부스타 품종은 영국 런던 시장에서 톤당 5,200달러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 상승률이 80%를 넘었다. 커피 원두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은 브라질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래년 커피 수확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이 꼽힌다. 올해 브라질의 가장 큰 강인 아마존강도 최저 수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70년 동안 측정된 기록중 가장 심각한 가뭄임을 의미한다. 또 다른 주요 생산국인 베트남에서도 건조한 경작기와 수확기 폭우로 인해 공급 우려가 더해졌다. 이외에도 코프디바르, 우간다,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가뭄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 커피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라보은행의 분석가 카를로스 메라는 브라질의 래년 공급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유럽련맹 산림 규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와 무역 분쟁에 대비한 사전 물량 증가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 외신